광남일보

조간 제8030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음력 1월 7일)

통합특별법 통과 초읽기… 빨라지는 '지선 시계'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통합시장·교육감 등 입지자 출마선언 줄이어
'무주공산' 광주 북구·목포·완도·신안 관심

6·3지방선거 D-100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가시화 하고 있다.

▶관련기사 8·19면

더불어민주당이 23~24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선관위도 법안 처리 이후 중앙선관위 지침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가동할 방침이어서 통합단체장 선거전이 본격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군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현역 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10명 이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시작으로 9일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10일 이개호·정준호 의원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3일에는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4일에는 이병훈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도 등록을 마쳤다.

출마예정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던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지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 선관위 역시 특별법 통과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지역민 접촉면을 넓히려는 주자들의 예비후보 등록도 단기간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역 단체장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선택지도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른 지방선거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이지만, 특별법에는 '광주시장 및 전남도지사는 공직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직을 그만두지 않고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서다. 하지만 3월 사퇴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특별시장 선거전과 맞물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도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지난 20일부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만 기초단체장에 28명이 접수, 각 지역에서 선거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군 단위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달 22일부터이지만 벌써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특히 최대 관심사는 '무주공산'이 된 기초단체장 선거다. 광주에서는 북구,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완도군, 신안군 등이 현역 단체장 없이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 어느 곳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과 화순군, 진도군은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선거 구도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통합교육감 선거도 현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단체장을 뽑는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며 "통합단체장 선거는 합종연횡, 기초단체장은 조별 경선, 지방의원은 가·감산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길리가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한파에 문 닫는 '백년가게의 눈물'

'민주인사 사랑방' 광주 동구 모회관 등 영업 종료
제조업 소공인도 직격탄…"명맥 단절은 경제 손실"

수십 년간 광주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들이 기록적인 경기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단순히 한 점포가 문을 닫는 경제적 현상을 넘어, 대를 이어 지역의 맛과 기술을 지켜온 '유형의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문화적·경제적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에서 백년가게로 지정됐던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거나 지정 해제되고 있다.

먼저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생고기비빔밥으로 명성을 떨쳤던 'A회관'은 최근 영업을 종료했다.

A회관은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광주에서 벌어졌던 각종 시국사건과 관련된 회의나 기자회견이 수시로 열리던 '민주인사 사랑방'이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즐겨 찾았던 단골집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2017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직후 지역 인사 40여명과 함께 8000원짜리 생고기비빔밥으로 오찬을 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 시대의 깊은 서사가 깃든 공간조차 치솟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지 못했다.

동구 학동에서 2대에 걸쳐 30년 이상 운영해 온 'B베이커리'도 최근 영업을 종료했다. 1989년 문을 연 B베이커리는 대형 프랜차이즈 확산세 속에서도 2대가 함께 30년 이상 운영하며 지역 독립 빵집의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핵심 원부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했다.

음식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백년소공인들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업종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소재의 C업체는 수십 년간 금속 창호 제조 외길을 걸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건설 물량 감소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치며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 계속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쇼트트랙 김길리, 생애 첫 올림픽 '2관왕'

여자 계주 이어 1500m '금' 쾌거… 최민정 은메달

한국 쇼트트랙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이 생애 처음으로 참가한 올림픽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관련기사 15면

김길리는 지난 2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32초07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우승을 견인한 김길리는 이날 개인 종목 금메달을 추가하면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 1000m 동메달까지 합하면 그가 획득한 총 메달 개수는 3개. 이번 대회 한국 선수 최다 메달이기도 하다.

처음 출전한 올림픽에서 3개 이상의 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나온 건 2014 소치 대회 심석희(금 1·은 1·동 1)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전이경과 간판 최민정도 첫 올림픽 무대에선 3개의 메달을 얻진 못했다.

이날 같이 여자 1500m에 출전한 김민정은 2위(2분32초450)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은 3)로 늘려 진종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이상 6개)을 밀어내고 동·하계를 통틀어 한국 선수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